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오늘도 수많은 문자가 텅 어리가 되어 다가온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SNS에서부터, 지인의 인사말, 직장의 공지사항,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을 알 수 없는 사진에 너무나 눈이 피곤하다. 이럴 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어렵다. 분명 머리로서는 '삭제해버리' 하면서도 손은 이미 더블클릭으로 눈에 들어온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

일주일에 한 편의 글을 쓰고, 전주매일신문사 오피니언에 연재한 글을 공유한다. 연재부터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작성한 글은 주로 가족이라는, 지인이라는, 직장 동료라는, 선·후배라는,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 의지와는 무관한 문자 테러를 하고 있다는 않은가? 바로 내가 그 보이지 않은 문자 테러범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것을 왜 이젠 알게 된 거지? 참 멍청한 놈이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변명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박 여 범

용북중학교 시인 문학평론가·문학박사

가장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 '어제 충주 다녀왔는데, 사진은 아직 못 받았네, 즐거운 밤으로 한 주 시작해 보세'
- '책 읽기를 좋아했군요! 형, 동생의 이야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그렇구먼, 누구나 흔하게 겪었던 20, 30대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이야기의 긴장감이 구성지네. 다음 편이 기다려지네, 친구. 잘 지내시지? 반가워~'
- '뒤에 올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아침이네요. 반갑고, 감사합니다'(SNS 모음)

기억에 남는 문장은 '배뚱(拜讀)·남의 글월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읽음· 잘하고 갑니

다, '시인님 참 좋아요. 몰 아끼고 건강 잘 챙기세요'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자와 이모티콘이 선물로 날아온다. 독자로서는 분명 귀찮고 짜증이 날 법도 하다. 하지만, 늘 여유롭게 다정한 문장을 전해주는 멋지고 고마운 사람이다.

반면, 문자는 '필수', 전화는 '선택'일 것 같은 '지음'의 '무관심'은 가끔 '상처'가 되곤 한다.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을 '사랑'이라는 거대한 '상자'에 담으려곤 하는 기억에 남는 문장은 '배뚱(拜讀)·남의 글월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읽음· 잘하고 갑니

사실이다. 그래서 부족한 글이지만 다양한 사람과 공유하고자 펼친 마당이 브런치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블로그, 카페에서 활동이다. 이 공간의 활동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 공간은 관심 분야를 검색하고 가입하여 공감을 나누면 된다.

그러나 이 공간의 장,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간 활동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감하려는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나 더욱 기분에 충실해야 한다. 억눌린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곳이 아니다. 이웃과의 인사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다. 같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부딪히는 횡수가 적다. 오히려, 가끔 태백나 배달 음식 아저씨를 만나는 횡수보다 적은 것이 이웃이지 않을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사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일본인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역사 배경을 무시한 채 위안부 문제를 개인이론으로 설명한데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돈을 많이 벌려는 민간 성매매업자와 노동자를 작게 하려는 여성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 계약을 맺었다는 식이다.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는 성노예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다. 이후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세계적 이슈로 발전해 갔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침략한 아시아 일대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졌다.

램지어는 위안부 동원의 주체가 민간인 업자들이었다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국가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규모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본 우경화가 한층 두드러졌다. 대표적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닛폰카이)가 1997년에 창립된 것도 이런 맥락의 하나다. 극우세력은 자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애매한 소리를 듣는 피해자'라고 말한다.

위안부의 불법성을 감추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의 목표는 일본이 침략국가가 아니라고 역사적 평가를 바꾸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난 로비 자금을 들여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지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아욕과 맞닿아 있다. 장기 전략을 갖고 일본 극우세력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전북 혁신도시 인구

전북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유입 보다 지역 내 인구 이동을 부추기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전입한 2만 8,138명 가운데 전주시 등 전북 도민이 86.88%(인 2만 4,472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등에서 전입한 인구는 매우 적었다. 서울 295명, 인천 156명, 경기 1,164명, 세종 62명, 기타 시·도 1,454명 등에 그친 것이다.

2017년 이후부터 서울 등으로 이사 가는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많은 것을 겨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의 경우 서울로 이사 간 전출자는 105명이었으나, 반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전입자는 77명으로 28명의 전출 겨차가 발생했다.

전북혁신도시 근무자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74.2%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 평균 65.9%를 웃돌면서 3위를 기록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은 28.3%로 10개 혁신도시 평균 채용률 28.0%를 밑돌면서 8위에 머물렀다.

혁신도시(Innovation City) 사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한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 사업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産)·학(學)·연(研)·관(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겨치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 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전입되는 인구 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

당초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교육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인프라 확충에 대한 후속 겨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서행·양보해야

며칠 전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하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서로 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일을 목격하였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진입전 "회전차량 우선"과 "진입차량 양보" 교통표지와 노면에는 "양보" 글자가 표시되어 있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양보와 서행을 하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입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사고가 빈발 하는데, 사고 발생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의 무가 있어, 우선 차량이 20%, 양보 차량에 8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

다.

전국에는 1,564개소(20년 기준)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치후 통행시간 21%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24.7% 감소, 사망사고 70% 감소, 차량간 상충점 75% 감소 등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부산광역시 당산오거리(15년 설치, 소형교차로), 익산시 오룡사거리(16년 설치, 1차로형), 예산군 상교역 사거리(16년 설치, 2차로형) 한 후 사고 건수가 설치 전후 각각 6건에서 0건, 8건에서 0건, 3건에서 0건으로 감소하였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시 서행, 진출입 시 보행자 우선, 진입 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 반 시계 방향으로 통행, 진출 시 우측방향지시등 켜기 등 5가지 회전교차로 운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비무장 흑인 살해 멈춰주세요"



21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시에서 패스워킹 카운티 부보안관이 수석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쏘 숨지게 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시 청사 밖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